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83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3.12~2026.03.18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예비후보(경선/오영훈/등록), 미래, 생활, 청년, 연동
경제·관광	여행(관광객), 가격, 마을, 주요소, 농업
지역·사회	구조(어선/해상), 상급종합병원(의료), 대응, 예방, 평화

※ 분석 기간 : 26.03.12.~26.03.18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보(경선/오영훈/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 재선 출마 및 경선 돌입 - 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 단수 공천 - 도지사 예비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대전환과 미래 비전 제시 -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 공약 - 미래 성장 동력용 인프라 확충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역 생활 SOS 기동대 도입 - 도민 생활 밀착형 쓰레기 정책 - 생활경제 플랫폼 탐나는전 확대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탈제주 방지 및 주거 지원 - 청년 비례대표 오디션 공정성 논란 - 청년 맞춤형 일자리 및 로컬 생태계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경선 격화 - 연동 지역 도심 주차 및 환경 개선 - 누웨마루 등 연동 상권 부활 및 도시재생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여행(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봄 색채를 따라가는 컬러 마케팅 관광 콘텐츠 - 필리핀 크루즈와 싱가포르 테마 단체 등 동남아 시장 공략 - 역사적 의미와 사색을 결합한 다크투어리즘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상승 기조와 대조되는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도내 주유소 유가 안정세 전환 - 수급 과잉에 따른 월동무 및 조생양파의 긴급 가격 지지 대책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형 마을 여행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전담 여행사 및 크리에이터 - 어르신들의 생산적 일자리 모델인 스마트팜 '우영뜨락' 개소 - 제주동문재래시장의 'K-관광마켓' 선정과 글로벌 관광지 육성
	주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주유소 담합 의혹 포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 - 운송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가 연동보조금 긴급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을 위한 특별보증 및 고유가 위기 대응 정책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트렌드를 겨냥한 소형 신제품 '달코미양배추'의 성공적 안착 - 제주 흑돼지 신제품 '난축맛돈'의 전국적 산업화 체계 구축 - '제주DA' 앱을 통한 농업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구조(어선/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귀도 해상 어선 화재 및 선원 구조 상황 - 실종 선원 수색 체계의 광범위 전환 및 지속 - 도서 지역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 구조 이송
	상급종합병원(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와 과제 -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24시간 특별 대응 체계 가동 - 소나무 고사 위기 해충 확산에 대한 긴급 방제 대응 - 겨울철 폭설 및 재난 상황 대비 민관 협력 대응 성과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성 범죄 급증에 따른 통합 예방 조례 제정 요구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 농번기 전정가위 안전사고 예방 및 주의보 발령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국가폭력 책임 재검토 -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년들의 평화 메시지 확산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 물 포럼 개최와 거버넌스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3월 12일~3월 18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70건임
 - 정치·행정 분야 397건, 경제·관광 143건, 지역·사회 330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예비후보(경선/오영훈/등락), 미래, 생활, 청년, 연동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보 (경선/오영훈/등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 재선 출마 및 경선 돌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시 칠성통 차 없는 거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기본사회 실현, 녹색문명 대전환, 연방자치도 추진 등 5대 비전을 제시하며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함.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주권시대를 열고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본격적인 당내 경선 준비 체제에 돌입함. · 위성곤, 문대림 등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오영훈 지사의 재선 도전에 맞서 출사표를 던지며 3파전의 치열한 당내 경선 구도가 확
-------	---------------------	---

정치·행정	<p>예비후보 (경선/오 영훈/등 록)</p>	<p>정됨. 각 후보들은 민생 회복,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1차 산업 대개조 등 차별화된 정책 공약과 비전을 잇따라 발표하며 도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열한 정책 경쟁을 전개함.</p> <p>- 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 단수 공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시 연동을, 애월읍갑 등 5개 선거구의 도의원 예비후보를 1차 단수 공천 대상으로 확정하여 공식 발표함. 하위 20% 현역 의원 감산 규정과 범죄 이력 등에 대한 엄격한 중앙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옥석 가리기에 착수함. · 국민의힘 제주도당 역시 예비후보자 공모와 기초자격평가(PPAT)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선거구에서는 신청자가 미달되어 재공모 절차를 밟는 등 인물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여야를 막론하고 32개 도의원 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다수의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들이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속속 마치며 본선을 향한 뜨거운 예선 경쟁이 지역 정가에서 접착됨. <p>- 도지사 예비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간의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오영훈 지사의 과거 행적과 도정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는 익명의 흑색선전 웹발신 문자메시지가 도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오 지사 측 선거준비사무소는 해당 발신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즉각 고발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공식 요청함. · 경쟁 예비후보인 위성곤 의원은 이러한 비방 문자가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도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후보 간 정책 중심의 경쟁을 다짐하는 클린 경선험약과 3자 긴급 회동을 전격적으로 제안함. 선거 초반부터 정책 대결 대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면서 혼탁한 선거 분위기에 대한 지역 사회의 깊은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됨.
	<p>미래</p>	<p>- 제주의 대전환과 미래 비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예비후보 등은 인구 유출과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제주의 생존을 위해 과거의 현상 유지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된 담대한 혁신이 시급함을 강력히 주장함. 제주가 보유한 재생에너지와 생태 자원을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지속 가능한 지식 경제 도시로의 전면적인 산업 구조 개편을 핵심 비전으로 제안함. · 재선 도전을 선언한 오영훈 도지사는 연방자치도 추진과 글로벌 문화콘텐츠 르네상스 등 제주만의 고유한 지역 자산을 적극 활용한 장기적인 미래 비전 청사진을 도민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시함. 실질적인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진정한 도민 주권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고향인 제주에서 희망찬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산업경제 혁신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할 계획임. <p>-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 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문성유 예비후보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하며 위기에 빠진 제주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구조적으로 탈바꿈시켜 활력이 넘치는 강한 경제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선언함.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p>미래</p>	<p>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 사회에 남아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는 든든한 환경 조성을 굳게 약속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히기 위해 2028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대규모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힘.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 대전환 프로젝트와 청년의 주거 및 일자리를 생애주기별로 책임지는 5대 패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세대의 밝은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고자 함. <p>- 미래 성장 동력용 인프라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취약한 지식산업 인프라를 보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융합 연구 중심의 제주과학기술원(JIST)을 신규 설립하여 전 세계 석학과 첨단 혁신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생태계를 조성함. 이와 더불어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대규모 체험형 어드벤처 시설과 관람차를 갖춘 복합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켜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됨. ·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지향적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오는 2035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난방 시스템을 청정 전기로 전면 전환하는 생활영역 열에너지 전기화 대전환 종합 계획이 발표됨. 이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주의 주력 산업을 탄소중립 기반의 첨단 지식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토대 마련 작업임.
<p>정치·행정</p>	<p>생활</p>	<p>- 읍면지역 생활 SOS 기동대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는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높고 일상적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읍면지역 거주 도민들의 잦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지원 정책을 새롭게 발표함. 전문 인력이 읍면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전등 수리나 배관 점검 등 일상 속 소소하지만 절실한 생활 민원을 전화 한 통으로 즉각 처리하는 제주형 생활 SOS 기동대 운영을 약속함. · 새롭게 신설될 기동대는 각 권역별로 10명 규모의 전문 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노인 가구의 낙상 방지 시설 개선, 화재 예방 점검, 단열 보수 지원 등 선제적인 안전 관리 서비스를 밀착 제공함. 이를 통해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외곽 지역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힘있게 견인함. <p>- 도민 생활 밀착형 쓰레기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생활 쓰레기 배출량 급증으로 심화되는 도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소각 및 매립 중심의 정책에서 재활용과 순환 위주로의 대전환을 강하게 촉구함. 동네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센터를 현재 180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장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황경남 예비후보는 골목길 곳곳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상가 밀집 지역 내 상습적인 불법 투기 문제가 주민 생활환경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p>	<p>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함. 이에 공공일자리 사업과 적극 연계한 상시 환경정비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주민과 상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네 환경관리 협력체를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굳게 다짐함.</p> <p>- 생활경제 플랫폼 탐나는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단순한 물품 결제 수단을 뛰어넘어 대중교통비 환급 기능, 대학생 학생증 연계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깊숙하게 스며드는 종합적인 제주형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음.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민들의 실시간 소비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맞춤형 행정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함. · 누적 발행액이 무려 2조 4천억 원을 돌파한 탐나는전은 연중 10%의 기본 캐시백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최대 20%까지 적립률을 상향하는 탄력적 운영 체제를 새롭게 도입함. 지역 내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규모 영세 가맹점들의 실질적인 매출 회복을 돕고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함.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행정</p>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p>	<p>- 청년 탈제주 방지 및 주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심각한 탈제주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청년 월세 상한제 도입과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정책이 핵심 선거 공약으로 등장함.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강력히 억제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행정적 차원에서 확고하게 마련해주고자 함.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주거, 일자리, 문화를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지원하는 5대 패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아울러 원도심의 방치된 빈 점포들을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적 성장 거점 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하여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자생력 있는 청년 경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함. <p>- 청년 비례대표 오디션 공정성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투명하게 선출하겠다고 야심 차게 전국 단위의 청년 공개 오디션을 공고했으나,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거센 비판에 직면함. 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일반 청년이나 참신한 정치 신인들이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을 형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음. · 불투명한 세부 심사 기준과 불공정한 추천 방식에 반발하여 국민의힘 이하영 제주도당 홍보위원장이 오디션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내부 반발 사태가 발생함. 겉으로는 청년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p>	<p>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기득권 위주의 폐쇄적인 공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청년 당원들과 지역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p> <p>- 청년 맞춤형 일자리 및 로컬 생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첨단 지식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융합형 제주과학기술원 설립과 글로벌 산학연 창업 클러스터 조성이 최우선 혁신 과제로 집중 논의됨. 전 세계 우수 석학들과 혁신적인 정보기술 및 바이오 기업들을 지역으로 대거 유치하여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 산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움직임임. · 제주-서귀포 간 기능분업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 국비 프로젝트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청년 창업가들에게 시제품 제작부터 전문적인 성장 컨설팅까지 통합적인 맞춤형 사업화 패키지를 전폭 지원함. 이와 더불어 원거리 출퇴근 청년 근로자들에게 주거비 및 교통비를 직접 보조하는 생활밀착형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유능한 청년 인재의 지역 내 유입과 장기 정착을 유도함.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행정</p>	<p style="text-align: center;">연동</p>	<p>-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경선 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핵심 관문이자 최대 행정 및 상업 요충지로 꼽히는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가 6·3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서 여야를 통틀어 예선과 본선 모두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최대 격전지로 지역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만 3선 도전에 나선 현역 양영식 의원을 포함해 무려 5명의 유력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피 말리는 당내 공천 경쟁을 벌임. · 각 후보들은 오랜 숙원 사업인 넓고 비좁은 연동주민센터의 신축 이전,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 재건축 활성화, 도심 속 여가 생활을 위한 청소년 문화 시설 및 돌봄 센터 확충 등 다채로운 맞춤형 공약을 쏟아냄. 급격한 상권 침체와 심각한 교통 혼잡 등 지역 내 누적된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잃어버린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표심을 공략함. <p>- 연동 지역 도심 주차 및 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통행량이 많고 인구가 밀집된 연동 지역 특유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소유의 유휴 주차 공간을 인공지능 기술로 실시간 연계하는 스마트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방안이 참신한 혁신 공약으로 적극 제시됨.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영주차장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대규모 주차빌딩을 신규 건립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이 논의됨. · 어둡고 좁은 이면도로에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과 지능형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늦은 밤에도 어린이와 노약자가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이 지역 주민 생활 안전 강화 대책으로 새롭게 추진됨. 아울러 상가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골목길 생활 쓰레기와 불법 투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p>경제·관광</p>	<p>여행(관광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봄 색채를 따라가는 컬러 마케팅 관광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유채꽃의 노란색, 벚꽃의 연분홍색, 바다와 들판의 푸른 색 및 초록색을 테마로 설정하여 계절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여행 동선을 설계함. · 대왕수천예래생태공원의 유채꽃부터 장전리와 신평리의 벚꽃길, 함덕 서우봉의 유채와 바다가 어우러진 경관 등 마을 자원과 연계된 다채로운 명소를 소개하며 관광객들이 제주 봄의 정취를 입체적으로 만끽하도록 유도함. - 필리핀 크루즈와 싱가포르 테마 단체 등 동남아 시장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한 코스타 세레나호가 관광객 2233명을 태우고 강정항에 처음 입항함에 따라 사물놀이 공연과 전통시장 바우처 증정 등 지역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환대 행사를 전개함. · 싱가포르 최고의 방송인 귀광과 함께하는 봄꽃 테마 관광단 221명을 유치하여 녹산로 유채꽃길과 성산일출봉 등 주요 명소 및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부가가치 관광 모델을 제시함. - 역사적 의미와 사색을 결합한 다크투어리즘 모바일 스탬프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일운동 및 제주 4·3 관련 역사 유적지 15곳과 동네책방 7곳을 연계하여 11월까지 운영하며, 단순한 자연경관 관람을 넘어 제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색의 기회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함.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고조된 역사적 관심을 반영하여 투어 장소에 책방을 포함하고 2곳 이상의 방문 인증 시 실용적인 기념품을 증정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를 병행해 연중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
	<p>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상승 기조와 대조되는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조사 결과 제주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76% 하락하며 전년(-1.23%)보다 하락 폭을 키웠고, 이는 전국 평균이 9.16% 상승한 것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나타남. · 도내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지난해보다 100만 원 감소한 1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택 시장의 소비 심리가 전국 최저 수준인 93.6을 기록하며 하강 국면을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와 관망세가 뚜렷해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도내 주유소 유가 안정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도입되면서 제주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시행 전 최고가 대비 사흘 만에 리터당 수십 원 하락함. · 경유 공급가 상한이 휘발유보다 낮게 설정되어 경유 가격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서울 다음으로 전국 최고가 수준을 형성하고 있어 도민과 농가의 난방비 및 물류비 부담은 지속됨. - 수급 과잉에 따른 월동무 및 조생양파의 긴급 가격 지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 면적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치며 월동무 20kg 가격이 9000원대로 하락하자 1000톤 규모의 시장 격리와 하나로마트 할인 행사를 통한 2000톤 분산 출하 등 가격 안정화 및 소비 촉진 사업을 긴급히 추진함.

경제·관광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생양파 역시 저장 물량의 과잉 재고와 수입 수요 증가로 도매가격이 평년 대비 60% 이상 급락함에 따라, 농가들은 출하 시기를 늦추며 정부에 비축 물량 폐기와 선제적인 수급 조절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임.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형 마을 여행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전담 여행사 및 크리에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원과 주민의 삶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여행 상품을 기획할 전담 여행사 5개소와 크리에이터 6개소 등 총 11개소를 지정하여, 마을 통합 브랜드인 '카름스테이'와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개발함. · 선정된 파트너들에게는 1년간의 공식 지위 부여와 함께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창의적인 기획력을 활용해 제주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어르신들의 생산적 일자리 모델인 스마트팜 '우영뜨락'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이도2동 영산홍주택에서 어르신 20명이 상추와 허브를 재배하는 디지털 농업 기술 접목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생산과 판매 및 나눔이 공존하는 혁신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함. · 제주개발공사의 무상 공간 제공과 한국중부발전의 시설 설치비 1억 1500만 원 지원 등 민관 협력으로 구축되었으며, 수확된 농산물은 공동체 식당 납품과 지역 주민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공동체 가치를 실현함. - 제주동문재래시장의 'K-관광마켓' 선정과 글로벌 관광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공모 사업에서 제주권 유일하게 선정된 동문재래 시장은 먹거리와 야시장 및 원도심 관광 자원과의 높은 연계성을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맞춤형 컨설팅과 국내외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됨. ·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국어 안내 체계와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짐 보관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수용태세를 갖추어 원도심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시킬 계획임.
	주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주유소 담합 의혹 포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사태 이후 제주 지역의 기름값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격히 치솟으면서 주유소 간의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징후가 의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가격 대응반을 구성하여 도내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함. · 가격 인상을 주도한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정유사의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과 출고 조절 여부 등 유통 단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대처하여 소비자의 부당한 부담을 차단할 방침임. - 운송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가 연동보조금 긴급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화물차 및 경유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9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적용하는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책을 시행함.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집행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부정 수급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여 재정 지원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임. -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을 위한 특별보증 및 고유가 위기 대응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1억

경제·관광	주요소	<p>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 대상으로는 예비비를 투입해 면세유 상승분의 차액을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민생 안정 대책을 가동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직접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유가 동향을 점검하고 주유소협회 및 관련 기관에 가격 안정화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면세유 가격 급등분의 국비 지원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유가 안정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트렌드를 겨냥한 소형 신제품 ‘달코미양배추’의 성공적 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림농협이 최근 4년간의 시험 재배를 거쳐 상품화한 ‘달코미양배추’는 일반 양배추의 3분의 1 크기로 소량 보관에 용이하며,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수도권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최근 활발한 홍보 행사가 진행 중임. ·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계약재배 단가를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평당 1만 원으로 끌어올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 판로를 넓혀 지역 대표 특산물로 육성함. - 제주 흑돼지 신제품 ‘난축맛돈’의 전국적 산업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종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유전자를 활용해 개발된 ‘난축맛돈’의 사육 농가가 내륙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부터 유통과 소비를 잇는 산업화 체계를 마련하여 국산 흑돼지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함. · 일반 돼지보다 근내지방 함량이 10% 이상 높아 구이용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등심과 뒷다리 부위도 고급화가 가능해졌으며, 농촌진흥청은 사육 기반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판매망 활용을 높여 흑돼지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있음. - ‘제주DA’ 앱을 통한 농업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전용 앱인 ‘제주DA’를 통해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읍면동 사무소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여 농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함. ·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지 정보 및 보조 사업 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향후 영농 일지 도입과 사용자 환경 개편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농정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구조(어 선/해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경의 긴급 대응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 의료진의 진료 결과에 따른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골든타임 내 환자 수송 성과를 기록함.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고난도 중증 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의 원정 진료 부담을 해소함. · 의료기관의 위상 강화와 전문 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지역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인프라 구축 기대. -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수행하던 2차 병원 기능의 공백과 초진 환자의 진료의뢰서 지참 의무에 따른 병원 이용 문턱 상승 및 주민들의 접근성 악화 우려 제기됨. ·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혼란과 진료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내 병·의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모델 구축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단순한 병원 등급의 승격이 아닌 제주 의료체계 전체의 재편으로 보아야 하며 지정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과감하고 적절한 공공의료 투자 강조. · 도민의 의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내에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유연성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 수립.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24시간 특별 대응 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5대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신고 접수·처리 체계를 가동함. ·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함. - 소나무 고사 위기 해충 확산에 대한 긴급 방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전역에 솔껍질깍지벌레 등 해충이 확산되어 소나무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나무주사 처방과 항공 및 지상 방제 작업을 포함한 긴급 대책 마련. · 해안가와 중산간 지역의 피해 실태를 정밀하게 예찰하고 가뭄 및 냉해와 겹친 복합적인 고사 원인을 분석하여 5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병행한 해충 밀도 저감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 - 겨울철 폭설 및 재난 상황 대비 민관 협력 대응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주도가 인력 1,071명과 장비 546대를 투입하고 경찰

지역·사회	대응	<p>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제설 작업에 즉각 대응하여 대설 특보 상황에서도 큰 피해 없이 안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제설을 위한 합동 구매 협의체 구성과 시내 주요 도로의 제설 공백 해소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및 기상 악화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성 범죄 급증에 따른 통합 예방 조례 제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특정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신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과 초기 대응 및 사후 관리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교제폭력까지 예방 및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됨.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경찰이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과 운전자 대상 예방 교육 실시. ·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지속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독려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운전 문화 정착 유도. - 농번기 전정가위 안전사고 예방 및 주의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 감귤 나무 등 과수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전정가위 사용 중 손가락 절단 등 중증 외상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소방본부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홍보 강화. · 특히 사고 빈도가 높은 고령 농업 종사자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수칙 준수와 보호 장갑 착용을 당부하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국가폭력 책임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국가폭력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지속. ·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 국가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적절한 서훈 취소 검토와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의 종합적 반영 등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한 법적·절차적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 마련. -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년들의 평화 메시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대구, 이북5도 지역 청년들이 참여한 '최남단에서 청년이 외치는 평화' 행사를 통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지닌 상징성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청년 연대 네트워크 강화. · 4·3 평화공원 참배와 마라도 퍼포먼스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 간 통일 활동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 세대가 주도하는 평화 실천 문화를 조성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넓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 물 포럼 개최와 거버넌스

지역·사회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물, 미래를 담다'를 주제로 2026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및 제주물 세계포럼을 개최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모델과 국제적 평화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 ·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도민 참여 거버넌스를 결합하여 핵심 자원인 지하수를 보존하고 물을 매개로 한 글로벌 물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하여 인류 공동의 안녕과 환경적 평화 유지에 기여함.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